

PRESS KIT



IMMERSIVE EXHIBITION

VAN GOGH STARRY NIGHT

몰입형 미디어아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Culturespaces Digital - Bunker des Lumières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2032 - 2033 - 2034 - 2035 - 2036 - 2037 - 2038 - 2039 - 2040 - 2041 - 2042 - 2043 - 2044 - 2045 - 2046 - 2047 - 2048 - 2049 - 2050 - 2051 - 2052 - 2053 - 2054 - 2055 - 2056 - 2057 - 2058 - 2059 - 2060 - 2061 - 2062 - 2063 - 2064 - 2065 - 2066 - 2067 - 2068 - 2069 - 2070 - 2071 - 2072 - 2073 - 2074 - 2075 - 2076 - 2077 - 2078 - 2079 - 2080 - 2081 - 2082 - 2083 - 2084 - 2085 - 2086 - 2087 - 2088 - 2089 - 2090 - 2091 - 2092 - 2093 - 2094 - 2095 - 2096 - 2097 - 2098 - 2099 - 2100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고갱, 섬의 부름 | GAUGUIN, THE CALL OF THE ISLANDS

주최·주관

TMONET



Trip.com

제작

TMONET

culturespaces
STUDIO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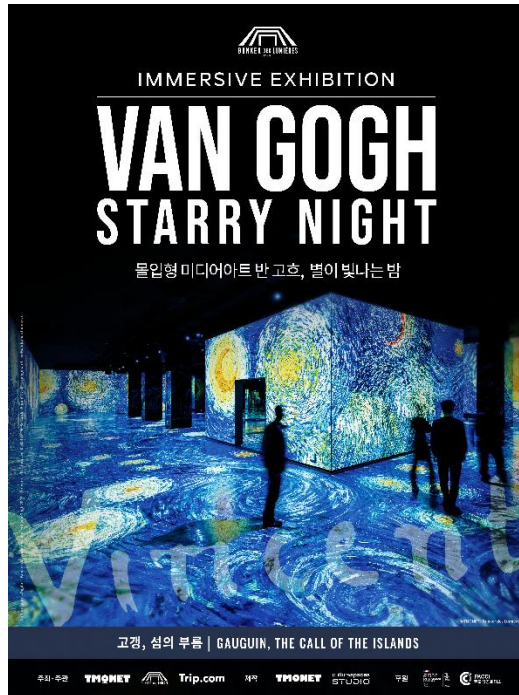


Table of Contents

1. 빛의 벙커, 몰입형 미디어아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展 개막	3
2. 빛의 벙커 -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展	5
3.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Van Gogh, Starry Night	6
4. 빛의 벙커 소개	16
5. (주)티모넷 소개	17



빛의 벙커, 몰입형 미디어아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展 개막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포스터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 빛의 벙커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4월 8일 개막... 공간 속에서 다시 만나는 반 고흐
- 반 고흐의 대표작을 따라 펼쳐지는 10개 시퀀스, 공간 전체를 채우는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 고흐와 고갱의 예술 세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경험하는 약 50분간의 예술 여정

빛의 벙커는 2026년 대표 콘텐츠인 몰입형 미디어아트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반 고흐의 작품과 감정의 흐름을 보다 깊이 있게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람객은 강렬한 색채와 풍경, 그리고 예술가의 내면이 펼쳐지는 공간 속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반 고흐의 세계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

전시는 반 고흐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그의 내면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는 메인 프로그램인 Long Show 콘텐츠와 고갱의 작품 세계를 함께 조명하는 서브 프로그램 Short Show 콘텐츠로 구성된다. 두 거장의 예술적 교차와 긴장 관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 전시장 전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메인 프로그램인 Long Show 콘텐츠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은 약 32분간 진행된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프로방스의 빛, 초기 작품, 자연, 파리 체류기, 아를 시기,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생레미 드 프로방스, 오베르 평원, 에필로그까지 총 10개의 시퀀스를 따라 전개된다.

각 시퀀스는 고흐가 머물렀던 지역과 시기, 그리고 작품 세계의 변화를 따라 구성됐다. 초기의 어두운 색조에서 시작해 남프랑스의 강렬한 빛과 색채, 말년에 이르는 걱정적인 풍경으로 이어지며 관람객은 한 예술가의 삶과 감정을 공간 전체로 경험하게 된다. 특히 아를 시기의 대표작과 밤의 풍경, 생레미 시기의 내면적 긴장, 오베르 평원의 장대한 풍경은 몰입의 정점을 이룬다.

이어 약 10분간 서브 프로그램 Short Show 콘텐츠 <고갱, 섬의 부름>이 상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폴 고갱의 강렬한 색채와 이국적인 풍경을 중심으로 그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보여준다. 고갱은 아를에서 반 고흐와 '남부의 아틀리에' 공동 작업을 진행하며 예술적 교류를 나눴고, 두 화가의 짧지만 강렬했던 협업은 예술사에서 인상적인 순간으로 알려져 있다.

강렬한 색채와 격정적인 붓질로 표현된 고갱의 세계는 빛의 벙커의 대형 프로젝션과 음악, 건축 구조가 결합된 연출을 통해 감각적인 서사로 펼쳐진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마치 그림 속 장면애 들어온 듯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고갱 파트 역시 상징적이고 원색적인 조형 언어를 통해 고갱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예술적 세계를 보여주며 전시의 밀도를 더한다.

옛 국가기간 통신시설을 재생한 빛의 벙커의 독특한 공간 구조와 360도 프로젝션 환경은 전시장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캔버스로 전환시키며 관람객에게 직관적이고 압도적인 예술 경험을 제공한다.

빛의 벙커 박진우 대표는 "제주 여행이 자연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빛의 벙커는 단순히 전시를 보는 공간이 아니라 작품 안에서의 경험이 온전히 남는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자연을 보러 온 여행객들이 이 공간을 통해 또 다른 감각의 제주를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연 중심 제주에서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은 제주 여행객들에게 몰입과 체험을 통해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빛의 벙커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展

장 소 빛의 벙커(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039-22)

전 시 구 성 ✓ 프롤로그: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 및 주요 작가, 빛의 벙커 소개

✓ 프로그램: 약 50분 전시

- [Long Show] (32분):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Van Gogh, Starry Night

- [Short Show] (10분): 고갱, 섬의 부름

Gauguin, The Call of the Islands

전 시 일 자 2026년 4월 8일 ~ 전시 종료일까지

관 램 시 간 [월~일] 10:00~18:20 (입장 마감 17:30)

입 장 권 성인 19,000원 (~2007년생)

청소년 14,000원 (2008~2013년생)

어린이 11,000원 (2014년~2022년생)

홈 페이지 www.deslumieres.co.kr/bunker

S N S [@bunkerdelumieres](https://www.instagram.com/bunkerdelumieres) /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BunkerdesLumieres)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 전시 개요

빛의 벙커(Bunker des Lumières)는 생전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1853 - 1890)의 작품을 전시작으로 선택했다. 과거 통신벙커 벽에는 고뇌의 삶을 살아낸 예술가의 강렬한 삶이 영상으로 그려진다. 반 고흐는 서른일곱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하기까지 10년간 2,000점이 넘는 작품을 남겼으며, 현재 그의 작품은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다.

수년에 걸쳐 급진적으로 변화한 빈센트 반 고흐의 많은 작품 중, 대표작인 감자 먹는 사람들(The Potato Eaters, 1885),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1889), 해바라기(Sunflowers, 1888), 아를의 반 고흐의 방(The Bed room at Arles, 1889) 등이 벙커 벽에서 새롭게 재탄생 된다. 반 고흐의 독창적 스타일로 해석된 구름과 태양 그리고 자화상은 생동감 있게 되살아나 불운한 예술가의 감성적이고 혼란에 가득 찬, 시적인 내면 세계를 그려낸다.

전시는 반 고흐의 다양한 삶의 여정과 그가 뉘넨(Nuenen), 아를(Arles), 파리(Paris), 생레미 드 프로방스(Saint Rémy de Provence) 등에서 보낸 시간을 주제별로 보여준다. 관람객은 반 고흐의 초기 작품부터 예술혼이 불타오르던 시기의 풍경화와 야경, 자화상과 정물화 등을 모두 만나볼 수 있다. 이 네덜란드 화가의 거칠고 강렬한 붓 터치에 대담한 색상 표현을 강조한 작품에서 빛과 그림자의 불변의 대화를 이끌어낸다.

지안프랑코 이안누치(Gianfranco Iannuzzi), 레나토 가토(Renato Gatto), 마시밀리아노 시카르디(Massimiliano Siccardi)가 연출한 시각 및 음향 프로덕션은 반 고흐의 색채적 풍부함과 더불어 작품의 생명력과 임파스토(impasto) 기법을 더욱 강조한다.

CULTURESPACES STUDIO®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이미지로 재탄생된 반 고흐의 걸작들은 색채를 다시 태어나게 하듯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빛의 벙커의 벽과 바닥을 가득 채우는 이 몰입형 여정은, 반 고흐의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 작품속으로 들어가 '경험하는 것'으로 확장시키며 관람객을 그의 예술 세계 한가운데로 이끈다.

- 전시 시퀀스 소개

1. 프롤로그 Prologue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1번째 시퀀스 '프롤로그'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전시의 도입부는 반 고흐의 강렬한 표현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짙은 컬러의 붓 터치로 인해 관람객은 그의 통찰력 있는 시선을 보다 실감나게 느낄 수 있다. 이는 관람객을 완전히 매료시켜 반 고흐의 내면세계에 폭 빠져들게 만든다.

2. 프로방스의 빛깔 The Provence light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2번째 시퀀스 '프로방스의 빛깔'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도입부를 지난 두번째 시퀀스는 알프스에서 생레미(Saint-Rémy)까지 프로방스의 중심에서 시작된다. '씨뿌리는 사람(Sower at Sunset, Arles, 1888)'에서는 프로방스의 햇빛이 캔버스를 넘나들고, 벙커의 벽과 바닥 전체를 빛으로 가득 채운다. 밀밭은 다채로운 푸른색으로 덧칠해지고, 하늘은 노란색으로 아름답게 물들여진다. 이러한 반전 컬러는 그가 얼마나 풍경을 자유롭게 다루었는지 말해준다.

3. 초기 작품 The early works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3번째 시퀀스 '초기 작품'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북부지방 풍경의 어두침침하고 우울한 색조는 농민들의 가혹한 일상생활을 나타낸다. 이러한 초기작은 다른 작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유명하다. 어부와 농민의 다양한 초상화가 벙커의 벽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뒤를 이어 그들의 마을과 집 그리고 반 고흐의 유명한 작품인 '감자 먹는 사람들(The Potato Eaters, 1885)'에 등장한 집의 내부가 스쳐 지나간다.

4. 자연 Nature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4번째 시퀀스 '자연'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1888년 반 고흐가 아를(Arles)에서 완성한 7개의 정물화 시리즈 중에서, '해바라기'는 그가 프로방스로 돌아왔음을 상징한다. 꽃다발과 다채로운 색상의 꽃잎은 색채의 변화를 의미한다. 반 고흐가 자신의 동생이자 후원자인 테오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인 빈센트 빌렘(Vincent Willem)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말년(1890년)에 그린 작품인 '꽃 피는 아몬드 나무(Blossoming Almond Tree)'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5. 파리에서 The period in Paris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5번째 시퀀스 '아를에서'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19세기 말 파리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아니에르(Asnières)에서 몽마르트(Montmartre)까지 아직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 파리의 풍경을 화폭에 담았다. 당시 반 고흐가 가장 좋아했던 주제는 갈레트 풍차 '물랭 드 라 갈레트(Moulin de la Galette)'였다.

6. 아를에서 Arles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6번째 시퀀스 '아를에서'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프랑스 남부의 한 마을인 아를은 반 고흐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반 고흐는 이곳에서 빛을 작품에 사용하는 기법을 완벽하게 완성했다. 이 시퀀스의 하이라이트는 그가 이 시기에 그린 가장 유명한 작품인 '밤의 카페 테라스(Café Terrace at Night, 1888)', '노란집(The Yellow House, 1888)',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를의 반 고흐의 방(Bedroom at Arles, 1888)'이다. 이 유명작을 배경으로 반 고흐가 아를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의 초상화가 나타난다. 이들의 초상화는 동생 테오와의 서신으로 이어지며, 반 고흐의 스케치가 벽을 가로지르면서 끝이 난다.

7.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 Olive trees and cypresses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7번째 시퀀스 '올리브 나무와 사이프러스'에서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반 고흐의 그림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인 사이프러스와 올리브 나무의 모티프가 벙커 내부를 가득 채운다. 반 고흐는 1889년에 완성한 사이프러스 나무 시리즈에 자신이 자연을 통해 느낀 아름다움과 혼란스러움을 담아냄으로써 풍경화 시리즈를 재창조했다.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Over the Rhône, 1888)'과 '별이 빛나는 밤(Starry Night, 1889)'에서는 수천 개의 별이 빛나는 밤하늘에서 송고한 듯하면서 불길한 분위기가 동시에 느껴진다.

8. 생레미 드 프로방스 Saint Rémy de Prov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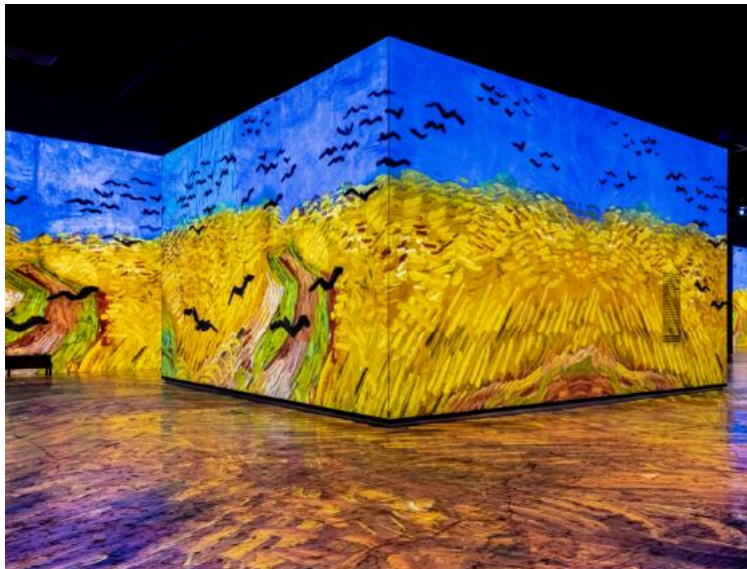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8번째 시퀀스 '생레미 드 프로방스'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이 시퀀스는 반 고흐가 1889년 요양했던 생레미의 요양소의 내부 풍경에서부터 시작되어, 정원과 가로수 등의 외부 풍경으로 이어진다. 불길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반 고흐의 자화상 시리즈가 벙커를 가득 채운다. 붓 터치에서 그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여실히 나타나며, 그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느껴진다. 그의 고뇌하는 영혼이 격정적 붓 터치와 강렬한 색상을 통해 표현된다.

9. 오베르의 평원 La Plaine d'Auv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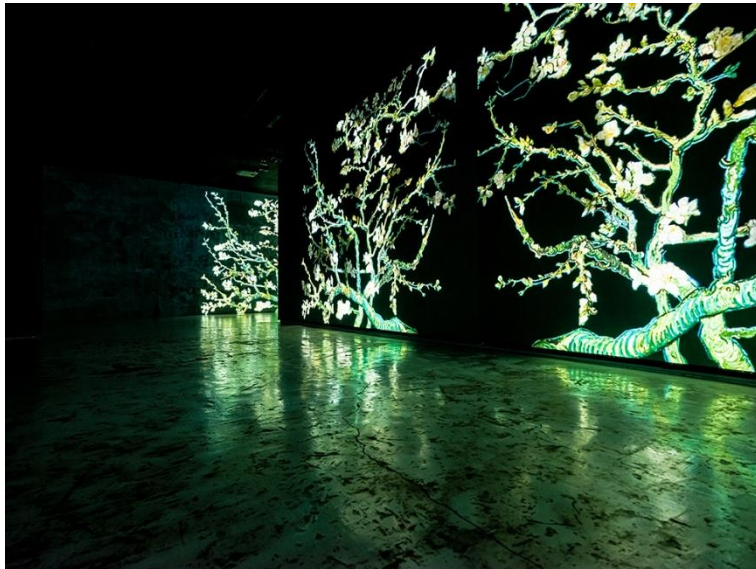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9번째 시퀀스 '오베르의 평원'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전시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주관적 표현한 반 고흐의 주요작 풍경화로 마무리된다. '까마귀가 나는 밀밭(Wheat Field with Crows, 1890)'은 반 고흐가 말년에 완성한 작품으로, 이 작품은 금색으로 물든 밀밭과 강렬한 대조를 이루는 불길한 느낌의 하늘을 특징으로 한다. 먹구름이 잔뜩 낀 우울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밀밭 위를 나는 까마귀 떼가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캔버스를 가득 덮는다.

10. 에필로그 Epilogue



©TMONET - Bunker des Lumières

반 고흐, 별이 빛나는 밤 전시 10번째 시퀀스 '에필로그'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반 고흐의 자화상은 만개한 아몬드 나무 한가운데서 다시 나타나 전시 공간을 가득 채운다. 이는 재탄생, 새롭게 발견된 생명력, 그리고 지속적이며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부활을 상징한다.

• 반 고흐의 삶 (Biography of Van Gogh)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 브라반트 북쪽에 위치한 그루트 준데르트(Groot Zundert)라는 작은 마을에서 출생했다. 설교에 그림을 사용한 그로닝겐 학파(Groningen School)에 속했던 그의 아버지 덕분에 반 고흐는 어린 나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여섯 남매 중 장남이었던 반 고흐는 특히 테오라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으며 평생에 걸쳐 테오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1864년 반 고흐는 가족과 떨어져 기숙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 이 시기가 매우 고통스러웠던 시기로 기억된다. 허약하고 수줍음 많은, 사회성이 떨어지는 학생이었던 반 고흐는 16세가 되었을 때 학교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1869년부터 숙부가 운영하는 구필 화랑 헤이그 지점에서 판화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헤이그를 떠나 브뤼셀, 런던, 파리에서 일했다.

어린 반 고흐는 늘 우울했다. 그는 독서에 심취했으며 독서를 통해 얻은 생각과 인용구를 통해 영감을 얻었고, 그러한 내용을 앨범에 넣어 간직했다. 그가 간직했던 문장에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절망했던 고뇌하는 예술가의 우울한 영혼이 우울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1876년 반 고흐는 구필 화랑을 떠나 런던으로 향했다. 런던에서 반 고흐는 노동자와 농민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고 성직자의 길을 걸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그는 벨기에 남부의 보리나주(Borinage)로 거처를 옮겨 다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예술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되었으며, 1880년 27세의 나이에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왕립 미술 아카데미(Academie Royale des Beaux-Arts)에 등록하고 안톤 벤 라파드(Anthon van Rappard, 1852 - 1892)와 함께 작업했다. 처음에 반 고흐는 주로 풍경화를 그렸다. 그리고 그는 헤이그에 정착했다.

반 고흐는 1884년 부모님 집으로 돌아와 일상적인 장면들을 화폭에 담았으며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전념했다. 그는 화가라는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이 시기에 200점이 넘는 작품을 완성했다. 그는 '내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그리고 내가 그린 것을 그대로 느끼는' 경지에 이르기 위해 예술과 색채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이 연구는 1888년 2월 그가 아를(Arles)로 여행을 떠나면서 비로소 실행되었다. 아를은 빛과 색채가 가득한 곳으로, 이곳에서 반 고흐는 화실을 열었다. 그는 라마르틴 광장에 있는 노란 집을 빌려 자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예술가들과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했다.

반 고흐가 다작을 했던 시기에는 특히 프로방스 풍경 속 강렬한 태양의 색채를 강조한 작품이 많다. 1888년 10월 고갱(1848 - 1903)이 반 고흐와 공동 작업을 시작했으나 그들의 협업은 2개월 만에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후 지속적으로 서신을 교환했다. 그러나 반 고흐의 내면에는 감출 수 없는 광기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는 마침내 자신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는 불면증과 환각에 시달렸고, 1889년 1월과 5월 사이 아를을 여러 차례 방문해 치료를 받았다.

여러 번의 위기와 실신을 거듭한 끝에 반 고흐는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는 요양원인 생레미에 있는 프랑스 남부의 생 폴 드 모졸(Saint-Paul de Mausole)에 들어가기로 결심한다. 이곳에서 그는 위안을 찾고자 했다. 그는 그림에 전념했으며, 많은 작품을 모사하고, 요양원의 정원을 그렸다.

1890년 테오는 반 고흐가 자살을 시도하자 오베르 쉬르 우아즈(Auvers-Sur-Oise)로 그를 옮겨 치료받게 했다. 이 시기 반 고흐는 맑은 정신을 되찾는 듯했다. 아마추어 화가이자 그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인 폴 가셰(Paul Gachet)와 함께 반 고흐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걱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천재 화가는 마침내 1890년 7월 27일 자신의 가슴에 총을 겨누었고, 총상을 입은 날로부터 이틀 뒤 세상을 떠났다.

현재 반 고흐가 남긴 작품은 2,000점 이상이며 전 세계 각지에 소장되어 있다.



'고갱, 섬의 부름'

- 전시 개요



©TMONET - Bunker des Lumière

'고갱, 섬의 부름' 전시 중 빛의 벙커 전시장 내부 전경

안개 낀 밤의 중심에서 낯설고 이국적인 숲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인들의 얼굴이 나타나 관람객의 시선을 붙든다.

그들은 의식의 불빛에 비취 조각상과 우상들이 놓인 마법 같은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초대한다.

고갱의 고향 브르타뉴로의 회상에는 시골 풍경과 마을, 인물들과 브르타뉴 농부들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 등장하며, 고갱의 그림 속에서 작가의 기억에 따라 구성되고 해체된다.

거대한 파도가 이러한 기억을 쓸어간다.

태평양의 섬들로 돌아가는 장면은 무성하고 낙원 같은 자연 위에 떠오르는 새로운 새벽과도 같다.

그곳은 언제나 여성들로 가득한 이상화된 세계의 삶의 장면들이다.

밤의 비가 이 자연과 꿈같은 삶의 색채를 흐릿하게 만든다.

그러나 질문은 남는다. 이는 고갱의 작품 중 절정을 이루는 유명한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잘 드러난다.

자화상들이 이 여정을 마무리한다.

- 고갱의 삶(Biography of Gauguin)

예술을 향한 사랑으로

1848년 6월 7일 파리에서 태어난 폴 고갱은 1848년 혁명에 연루되었던 정치 저널리스트의 아들이었다. 가족은 파리를 떠나 어머니 쪽 친척이 있는 리마로 이주하게 된다. 리마에서 4년을 보낸 뒤, 고갱은 누이와 미망인이 된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돌아온다. 그는 먼저 해군에서 일했고, 이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증권 중개인으로 일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후원자이자 아마추어 화가로서 미술계에 발을 들이게 된다. 친구 카미유 피사로의 권유로 그림을 시작했고, 1874년에는 부댕, 세잔, 드가, 모네, 시슬리와 함께 제4회 인상주의 전시에 참여했다. 그러나 이들은 그를 동료 화가라기보다 수집가이자 후원자로 보는 경향이 더 강했다. 고갱의 예술 활동은 증권 중개인으로서의 성공적인 경력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니옹 제네랄 은행의 파산으로 주식시장이 붕괴되면서 그의 삶에도 전환점이 찾아온다.

고갱은 이 상황을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기회로 받아들이며, 오롯이 회화에 전념하기로 결심한다.

브르타뉴와 섬들 사이에서

1886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갱은 생활비가 저렴한 폰타방(Pont-Aven)으로 떠난다. 그는 브르타뉴의 문화, 전통 의상, 푸르른 풍경 속에서 자신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킬 이상적인 영감을 발견한다. 광활한 자연과 독특한 분위기는 그의 스케치북을 풍성하게 했고, 자신만의 확고한 화풍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1886년은 또한 빈센트와 테오 반 고흐를 처음 만난 해이기도 하다. 서인도 제도와 마르티니크로 여러 차례 여행을 떠난 그는 태양과 강렬한 색채로 가득한 그림들을 제작한다. 그러나 1887년, 말라리아와 이질에 걸려 파리로 돌아와야 했다. 이후 그는 아를에서 반 고흐와 재회한다. 두 사람의 '남부의 아틀리에(Atelier du Midi)'에서의 협업은 짧았지만 강렬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은 다시 그를 이끈다. 1891년, 그는 공공교육·미술부의 지원 임무를 받아 타히티로 떠난다. 이는 '열대의 아틀리에(Atelier des Tropiques)'의 시작이었다. 파페에테와 그 주변 지역은 그의 풍부한 창작 활동의 원천이 되었다. 고갱은 조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제작하며,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는 파리에서 가져온 자료들(사진, 판화 등)과 폴리네시아의 전통과 미신, 그리고 현지 여성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영감을 얻었다. 잠시 프랑스로 돌아와 브르타뉴에 머물기도 했지만, 1895년 7월 13일 타히티로 영구히 떠났다. 파산 상태였고 매독에 시달리던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지막 작품들을 그렸으며, 1903년 5월 8일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빛의 벙커 소개



제주 서귀포시 성산에 위치한 '빛의 벙커'는 ㈜티모넷(대표 박진우)이 선보인 국내 최초 몰입형 예술 전시관이자 잊혀 있던 공간을 빛으로 재탄생시킨 '빛의 시리즈'의 국내 첫 번째 프로젝트다. 옛 국가 기간 통신시설이었던 숨겨진 벙커를 문화 재생 공간으로 재조명했다. 축구장 절반 정도인 1,000 평면적의 1층 단층 건물로 가로 100m, 세로 50m 높이 10m, 내부 높이 5.5m에 달한다. 내부에는 너비 1m²의 기둥 27개가 나란히 있어 공간의 깊이감을 살린다. 미로 같은 진입로에 거대한 규모의 내부 공간은 외부의 빛과 소음까지 차단되어 관람객이 작품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전시 공간을 찾기 위해 전국 각지의 답사를 거쳐 2017년 비로소 찾아낸 제주의 이 숨겨진 벙커는 철거 및 내부 공사, 콘텐츠 제작 및 사업, 마케팅 준비를 진행한 지 1년 만인 2018년 '빛의 벙커'로 새롭게 태어났다. 개관작인 2018년 11월 <빛의 벙커: 클림트>를 시작으로, <빛의 벙커: 반 고흐>, <모네, 르누아르... 샤갈>, <세잔, 프로방스의 빛>,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를 선보였다. 빛의 벙커는 제주의 대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을 뿐만 아니라 개관 이래 제주 지역 예술계와의 상생을 위한 행보를 지속하며 제주의 예술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주)티모넷 소개



“모바일 결제 솔루션 기업에서 문화기술(CT) 기업으로”

모바일 티머니로 잘 알려진 티모넷은 모바일 결제 솔루션 전문 기업에서 문화기술(CT)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간 전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교통카드 티머니를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결제(Mobile Payment)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현대 공유경제의 총아인 카셰어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카셰어링 솔루션을 개발하여 공유경제를 만들어 낸 장본인이다. 그 밖에 공인인증서 사용의 불편함을 없애 준 클라우드 기반 공인인증서 '이지싸인'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2015년 모바일 결제정보를 알고리즘화해 색채로 표현한 미디어아트 맵 프로젝트를 선보여 도시인의 삶의 행적을 공공미술(Public Art)로 만든 티모넷은 이제 IT와 예술을 접목한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서비스를 차세대 전략 사업으로 채택했다. 이에 프랑스 컬처스페이스社와 협력해 IT와 미술이 만나 경이로운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프랑스 '빛의 시리즈'를 2018년 11월 제주도 서귀포 성산지역에 '빛의 벙커'로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2022년 5월 서울 광진구 소재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 '빛의 시어터'를 오픈했다.

1. 회사 개요

회 사 명 : (주)티모넷

대 표 이 사: 박진우

법인 설립일: 2007.10.15

소 재 지:

(본사)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6 (도화동, 창강빌딩6층)

(빛의 벙커)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번길 89-17

(빛의 시어터)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B1층(광장동,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빛의 라운지 워커힐지점) 서울시 광진구 워커힐로 177, B1층(광장동,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홈 페이지 : www.t-monet.com / www.deslumieres.co.kr

2. 주요 연혁

2007	회사 설립(2007.10.15)_ (주)티모넷 (주)티머니 사내벤처 1호, 티모넷 별도 법인 설립 모바일티머니 서비스 개시
2008	이통 3사 충전/결제 인프라 구축 계약 체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방송통신위원회 위치기반/정보 사업자등록
2009	온라인 결제 서비스 오픈(G마켓, 11번가 등) 모바일 티머니 가입자 100만명 돌파

2010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티머니서비스 오픈 스마트컨버전스 연구소 설립 지식경제부 WBS 프로젝트 참여
2011	SKT/KT/LG U+ NFC 폰 티머니서비스 오픈 뉴질랜드 모바일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계약 Inno-Biz 인증 획득
2012	MWC 전시회 참가 모바일 App 결제를 위한 In-App 모듈 개발 모바일 티머니서비스 App 2.0 오픈
2013	카셰어링 시스템 개발 구축(씨티카, 유카 외) 모바일 보안 인증용 Micro SD 모듈 개발 Web 2.0 스마트창조도시 NFC 전문기업인증 후불충전 시스템 오픈(신한, 롯데, BC카드 등)
2014	VISION "FIVE T For 2018" 선포 모바일테크데이 컨퍼런스 개최 법인교통카드 서비스 오픈 월 충전 금액 200 억원 돌파 모바일티머니 App 3.0 오픈
2015	NHN 엔터테인먼트 투자유치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대통령표창_기술보호 OSPT(국제 개방형 교통시스템 표준협회) 가입 페이코/삼성페이 티머니 서비스 오픈
2016	NFC 충전/결제 통합 App 서비스 오픈 G 밸리 카셰어링 사업자 선정 2 차년도 한국전력 카셰어링 단말기 공급업체 선정 KSCC 2기 모바일 교통카드시스템구축 선정
2017	한국도로공사 스마트톨링시스템 실시설계 수주 클라우드 보안토큰 신규개발사업 착수 캄보디아 신설법인 설립 참여(페이온 33.34%)
2018	몰입형 예술 전시 사업 시설공사 착수 이지싸인(클라우드 인증서) 서비스 오픈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제주, 빛의 벙커)
2019	부비 NFC 앱 오픈(안드로이드, 아이폰) 빛의 벙커: 반 고흐(제주, 빛의 벙커)
2020	제주 "빛의 벙커" 100 만 관람객 돌파 부비 APP 리뉴얼 및 댄뎀(교통페이)로 리브랜딩 정부 혁신기술개발사업 선정/진행
2021	모네, 르누아르...샤갈(제주, 빛의 벙커) 워커힐 제휴 협의 및 계약/체결식, 컬처스페이스 계약 온라인 가맹점 대상 교통페이 결제(PG) 서비스 오픈 댄뎀 리워드 서비스 사업 제휴 계약
2022	세잔, 프로방스의 빛(제주, 빛의 벙커)

	구스타프 클림트, 골드 인 모션(서울, 빛의 시어터)
2023	달리, 끝없는 수수께끼(서울, 빛의 시어터) 시어터 오브 드림즈(서울, 빛의 시어터) 이탈종, 중도의 섬 제주(제주, 빛의 벙커)
2024	샤갈, 파리에서 뉴욕까지(제주, 빛의 벙커) 베르메르부터 반 고흐까지, 네덜란드 거장들(서울, 빛의 시어터) 이응노 : 위대한 예술적 여정, 서울 - 파리(서울, 빛의 시어터)
2025	칸딘스키, 추상 회화의 오디세이(제주, 빛의 벙커)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문명(서울, 빛의 시어터)

3. 주요 사업

- 교통카드 온라인 사업
 - 모바일 교통카드 사업/충전, 결제, 시스템 운영
 - M 교통카드 사업 제휴 등
 - 법인 티머니, 티코인

- 금융보안토큰 사업
 - 이지싸인, 클라우드 보안토큰 개발/인증시스템 및 H/W 개발
 - 스마트카드 보안인증 시스템

- 컬처 테크놀로지 사업
 - CT(Culture Technology) 사업
 - 몰입형 체험 전시
 - 문화예술 콘텐츠 공연
 - 기획 및 전시
 - 콘텐츠 IP 사업
 - 콘텐츠 발굴 및 제작

